

양돈장의 관심과 인식, 효과 인증받은 제품만 있다면 냄새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 (사)대한한돈협회 2015년 양돈장 냄새저감 효과 검증사업 1등 제품 '뉴트로'
... 냄새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
- '에어리페어'로 축산분야는 물론 오·폐수 처리시설과 생활 냄새제거 분야 진출 계획



우린네이처 고영규 대표

“양돈장의 냄새저감 등 가축분뇨 문제 해결 없이 한돈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선 순위에 두었던 생산성에 대한 과제는 기본으로,
이에 더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우린네이처의 고영규 대표는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농장의 냄새문제로 인한 주변의 민원으로
여러 규제들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린네이처(대표 고영규)는 대한한돈협회에서 지난 2015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냄새저감 제품에 대한 효과 검증사업에 참여하여

냄새저감률 53.96%로 1등을 차지한 '뉴트로'를 수입·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액비살포 시는 물론 축사 내·외부, 분뇨처리장 등의
냄새제거를 위한 '에어리페어'를 공급하고 있다.

▣ 농장은 물론 동물약품의 수입, 제조 분야를 거쳐 우린네이처에 이른다

… 환경을 중요시하는 미래를 예상하고 선택한 ‘뉴트로’

- 냄새저감 제품이 난립·불신하던 국내 상황을 효과로 제압

냄새제거는 물론 슬러지 분해도 하는 ‘뉴트로’를 수입·공급하고 있는 우린네이처의 고영규 대표는 지난 1984년 선진 계열 양돈장 코리아화암에서 양돈수의사로 생산분야에 인연을 맺은 이후 동물약품회사에서 수입과 제품 기획, 개발은 물론 제조 및 마케팅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러던 중 1992년에 동물약품 수입 컨설팅 및 신제품 허가를 하는 에버뉴트레드에 이어 1995년 우린물산을 설립했다.

우린물산을 설립하게 된 계기에 대해 고영규 대표는 농장이나 동물약품회사에서 일하던 당시부터 항생제 독성문제 등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천연물 소재 제품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린물산은 후에 우린네이처로 사명을 변경하고 현재에 이르게 됐다.

1995년부터 수입·보급하기 시작한 ‘뉴트로’는 세계 여러 나라

에서 인정받은 제품이었지만 당시 농가 상황은 효과가 불분명한 제품이 난립하여 냄새저감 제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었다고 한다. 이에 고영규 대표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먼저 사용해 보고 효과를 확인하면 비용을 지불하라는 방침으로 활동했다고 전했다. 즉 직접 농가에서 ‘뉴트로’를 물에 타서 뿌리고 사용 전후 가스 측정을 통해 냄새제거 효과를 확인시켜 준 것이다.

▣ 정부 주도 냄새저감 대책 한계 ... 농가 스스로의 효율적인 선택이 중요하다!!

- 대한한돈협회의 냄새저감 제품 효과 검증사업에 높은 의미 부여

고영규 대표는 ‘뉴트로’를 처음 보급할 당시인 1990년대 중반에 농장의 냄새를 잡겠다는 방향은 좋았으나 정부 주도의 냄새저감 대책에서 미생물제제로만 한정할 점이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처음부터 농가에게 좋은 제품을 고를 선택권을 주었다면 가축분뇨의 냄새문제 해결이 좀 더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대한한돈협회의 냄새저감 제품 효과 검증사업은 농가가 좋은 제품



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냄새해결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하면, 현장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 가중치를 주는 등 검증에 공정성을 기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도를 높게 살만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관급사업 등의 어려움으로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했다.

▣ 냄새·슬러지로부터 해방 비결은 '뉴트로'에 있다!!

- 냄새제거는 기본, 딱딱하게 굳은 슬러지도 신속하고 간단하게 분해

고영규 대표는 '뉴트로'를 사용하면 양돈장의 가축분뇨 냄새제거는 물론 슬러지까지 분해된다고 밝히며 다양한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슬러리피트나 액비탱크 같은 저장소에 '뉴트로' 원반을 넣어 두면 1~2.5개월간 지속적으로 냄새제거를 한다. 또 돈방 바닥, 스크레이퍼, 매몰지 같은 평지에 '뉴트로' 분말을 뿌리면 즉시 냄새가 제거된다. 특히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액비살포 시에 나는 냄새는 '에어리페어'를 사용하면 사라진다.

'뉴트로' 1kg은 암모니아 100,000ppm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기준을 근거로 실시한 실험에서 98.7%의 가스제거율을 나타냈다. '뉴트로'의 특성상 조금 더 추가하면 나머지 1.3%마저도 제거할 수 있다. 이는 '뉴트로'가 농장 어디든 문제가 되는 곳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가스를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많은 농가에서 '뉴트로'를 사용하여 미미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뉴트로'는 슬러지 제거에도



▲ 우린네이처의 '뉴트로'(위 원반, 아래 분말 사진)



▲ 고영규 대표는 기본적으로 생명체인 돼지가 있는 곳에 냄새도 있으며, 냄새는 반드시 생산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농가들이 효과가 없는 냄새저감 제품으로 냄새는 해결될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며, 농가들이 가축분뇨 등의 냄새제거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농장주들이 내 농장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냄새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많은 농가나 액비 관련 업체에서 '뉴트로'를 사용하여 슬러리피트나 액비탱크에 쌓여 있던 슬러지를 완전히 제거했다. 최근의 예로 한 축산위생연구소의 13년 된 액비탱크 내에 쌓여 있던 1.5m 슬러지가 '뉴트로' 사용 후 45일 만에 완전히 비워졌다.

고영규 대표는 냄새제거는 '뉴트로'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력한 효소작용 등으로 슬러지를 신속하게 분해하기 때문에 슬러리피트나 액비탱크에 수년간 쌓인 슬러지들도 단기간에 녹이며, 오래된 슬러지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완전히 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양돈장의 관심, 인식, 효과인증 받은 제품만 있다면 냄새는 반드시 해결된다!!

- 냄새제거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 ...
생산성적 향상과 위생적 장점 있어

고영규 대표는 기본적으로 생명체인 돼지가 있는 곳에 냄새도 있으며, 냄새는 반드시 생산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가축분뇨 냄새로 인해 축산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결국 축산업계에도 큰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농가들이 효과가 없는 냄새저감 제품으로 냄새는 해결될 수 없다는 편

견을 가지고 있다며, 농가들이 가축분뇨 등의 냄새 제거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농장주들이 내 농장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냄새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농장의 냄새문제를 해결하면 출하일령 단축 등 생산성적이 향상되고 위생적으로 앞선다는 장점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냄새 관련한 인증제도 마련에 박차 ... 친환경 생약 성분 시장 활성화도 목표


- '에어리페어'로 오·폐수 처리시설은 물론 생활 냄새제거 분야 진출 계획

고영규 대표는 앞으로 농장의 냄새에 관련한 인증제도를 계획하고 있다며, 특정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사용할 경우 냄새의 양을 측정하여 이 농장은 냄새에서 자유롭다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냄새의 양을 측정하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인증을 주는 냄새관리 인증 업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항생제 등의 약품을 덜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약 성분을 주로 한 제품 시장도 만들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아울러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액비살포시에 나는 냄새제거를 하는 '에어리페어'로 오·폐수시설과 생활 냄새제거 분야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에어리페어'는 암모니아, 황화수소는 물론 아민류와 스카톨, 휘발성 유기물질 등과 접촉해 직접적으로 냄새를 제거하는 제품으로 사용 즉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순 방향제가 아닌 탈취제로, 식용 원료로 제작되어 사람, 가축, 환경에 무해하다. 악취 발생원에 섞거나 분무하여 악취를 즉시 제거할 수 있으며, 액비 살포 시, 돈사, 계사, 전사 등 축사 내·외부, 발효장, 분뇨저장소 및 처리장, 깔짚, 애완용품, 가축 매몰지 등 악취 발생원이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전했다. 

【취재 : 안영태 기자, 박지아 기자】